사상의학회지
J. of. Const. Med.
Vol.9. No.2. 1997.

婦人科 冷症患者의 辨證類型과 四象體質과의 관계에 대한 小考

李仁仙**·金鍾元*·李相勳**

Study for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Differentiation of Symptoms and Signs of Oriental Gynecology and Sasang Constitution

(In the Field of the Patiehts who chiefly complained Feeling of Cold)

In-seon Lee, Jong-weon Kim, Sang-hoon Lee

Dept.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We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type which was figured out by the question paper given to the patients who chiefly complained feeling of cold and Sasang constitu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Diagnoses in woman's disease with feeling of cold(冷症) are abdomnal mass(uterine myoma, ovarian cyst), dysmenorrhea, leukorrhea and infertility, orderly in number. They have commoness in the origin of disease which are stagnation of Qi(氣滯) and blood stasis(血瘀), cold(寒), damp(濕) and we can find the causes of feeling of cold are stagnation of blood(血滯) and harmness of damp(水毒).
2. In the type of survey through the question paper, the largest number of the origin of that disease is cold, the next is blood stasis and dificiency of Qi(氣虛), dificiency of blood(血虛), stagnation of Qi, damp phlegm(濕痰) etc.
3. ① The numbers by constitutional assortment of object are like this. Taeumin are 23 persons,Soumin 14 and Soyangin 6, so we can find the feeling of cold turn up evenly in all

*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과
**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

www.kci.go.kr

constitution but the number of Soyangin was relatively small.

② The inclination of constitutional type is the highest in Soumin and they often have and feel strongly disorders of their body.

③ We could find the corelation of theoretical background of Sasang Medicine in constitutional type of survey.

4. ① The numbers by constitutional assortment of the patients with feeling of cold and numbness(冷痺症) are like this. Taeumin are 16 persons, Soumin 7 and Soyangin 3, as are like the distribution of 3-①.

② The inclination of constitutional type is the highest Soumin, so they have multiple type of differentiation of symptoms and signs and their symptoms is old and severe, therefore they need long time for cure.

In all, except the symptom with feeling of cold caused by dificiency of the blood and insufficiency of yang(氣虛와 陽虛) that we meet frequently on clinic is numerous, the number of that caused by stagnation of Qi and blood(氣滯와 血滯) alike dysautonomia is also large. And we can find the feeling of cold turn up evenly in all constitution but the number of Soyangin was relatively small. Within the case of Soumin, they have both dificiency of Qi and blood, have complex source, so their symptoms are old and severe and they need long time for cure. In Taeumin, they are of large number with dificiency of Qi and we think thst that are concerned with the symptom of exterior cold.

Ⅰ. 緖　論

診斷의 과정은 질병을 인식하고 질환을 평가하는 知的, 技術的인 작업의 종합이다. 韓醫學의 診斷은 望聞問切의 네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질병에 의한 症狀, 體徵을 이해하고 아울러 辨證의 이론을 이용하여 정확한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1]. 그러나 진료에 임하여 짧은 시간에 환자가 가진 증상 모두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우며 흔히 主訴症의 辨證에 근거가 되는 몇몇 증상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고, 근거로 삼는 증상 자체도 診斷醫의 임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서로 같지 않아 객관화의 어려움이 있다.

본인은 辨證診斷의 근거가 되는 증상들에 대하여 설문을 만들고 환자가 직접 답하게 하는 설문조사를 통한 진단객관화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부인과 외래 환자 분포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였는 바, 不姙.稀發月經.無月經.習慣性流産 등이 동일한 질병발전 과정에 있어 원인 病理上에 유사성이 있으며, 상기 질병으로 래원한 환자의 辨證類型이 주로 腎虛型·氣血虛弱型·氣滯型·濕痰型·血瘀型으로 요약되어 짐을 알 수 있었다[2].

이를 근거로 하여 원인 병리상 유사성이 있는 몇몇 부인과 질환에 대하여 설문지를 통한 調査硏究를 행하여, 75.2%의 환자에서 1-3개의 辨證類型이 算出되었고, 이 중 58.1%에서 診斷醫의 診斷類

www.kci.go.kr

型과 설문지를 통한 調査類型이 일치하거나 연관성이 있어 설문지를 통한 診斷의 가능성을 나타내었다[3].

一連의 연구과정중에 하나로 冷症이나 痺證을 주로 호소하는 환자의 원인과 관련된 診斷類型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술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아울러 四象體質醫學에서 행하고 있는 診斷프로그램을 동시에 행하여 서로 비교함으로써 동일한 질환에 대한 각 體質간의 類型을 비교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Ⅱ. 調査對象 및 調査方法

1. 對 象

1997年 3月 1日부터 1997年 5月 31日까지 만 3개월 동안 東義大學校 附屬韓方病院 婦人科에 來院한 外來患者 가운데 冷症이나 痺證을 주로 호소하거나 辨證類型이 寒證에 속하는 환자 62名에 대해 韓方婦人科 설문지와 體質診斷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중 설문지 작성이 완전하지 않은 19명을 제외한 43명을 調査對象으로 삼았다.

2. 方 法

조사기간 동안 來院한 62名의 婦人科患者들에 대해 韓方婦人科 설문지〔별첨〕와 四象體質분류검사지{QSC(Ⅱ)}[4,5]로 조사하였다.

韓醫學에서 중요한 辨證體系는 氣血陰陽津液辨證, 臟腑辨證, 傷寒辨證 등이 있지만[6], 설문지를 통한 진단 연구가 초보적 상태이므로 먼저 氣血陰陽津液辨證으로 前述한 腎虛·氣血虛弱·氣滯·濕痰·血瘀의 主症과 次症을 분석한 결과 氣虛.血虛.陰虛.陽虛.氣滯.濕痰.血瘀의 7가지 단위 類型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陽虛는 主症이 畏寒, 肢冷, 倦怠無力, 少氣懶言, 自汗이며 次症이 面色淡白, 口淡不渴, 小便淸長, 大便 薄[6]이고, 陽虛의 평균점수는 主症狀이 최소 3개이고, 類型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나 대상자의 調査類型이 算出되지 않을 경우 主症이 3개 이상인 경우까지 포함시켰으므로 실제로는 手足冷症, 畏寒의 증상이 主가 되어 虛寒의 상태를 정확하게 가려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類型의 명칭을 虛實의 구별없이 寒으로 하였다.

氣血兩虛나 寒濕, 陰陽兩虛 등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단위類型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診斷이 가능하였다.

3. 類型算出

類型算出의 방법은 李[3]를 따랐으며, 體質別 類型傾向을 비교하기 위하여는 主症점수가 평균점 이상이거나 類型점수가 평균보다 1점 적은 범위까지를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4. 類型算出 방법

1) 먼저 각 類型의 해당증상은 다음과 같다.

氣虛類型 : 主症 : 呼吸氣短, 神疲乏力, 少氣懶言
次症 : 面色無華, 飮食無味, 自汗[6]

血虛類型 : 主症 : 面白無華 或萎黃, 眼瞼 口唇蒼白, 爪甲淡白, 頭暈眼花, 心悸, 健忘, 失眠, 多夢, 手足麻木
次症 : 怔忡, 毛髮不澤, 爪甲脆薄, 頭痛隱隱[6]

www.kci.go.kr

陰虛類型 : 主症 : 潮熱, 盜汗, 五心煩熱, 午後 紅
次症 : 形體消瘦, 口乾咽燥, 眩暈, 失眠, 尿少色黃, 大便乾結[6]

陽虛類型 : 主症 : 畏寒, 肢冷, 倦怠無力, 少氣懶言, 自汗
次症 : 面色淡白, 口淡不渴, 小便淸長, 大便 薄[6]

氣滯類型 : 主症 : 脘腹胸脇乳房腰背疼痛脹悶(時輕時重, 痛無定處, 位不固定, 竄痛或攻痛, 隨情緖而增減)
次症 : 月經時小腹竄痛, 噯氣, 太息, 結塊(聚散無常), 噯氣矢氣後 症狀減輕, 肩 腿膝流走疼痛[6]

濕痰類型 : 主症 : 形體肥滿, 胸悶, 惡心, 帶下量多
次症 : 口淡納少, 頭暈目眩, 身體困重, 雨中尤甚, 大便不實[7]

血瘀類型 : 主症 : 小腹疼痛拒按
次症 : 經色紫暗, 有血塊[8]

조사대상자가 표시한 증상이 각 類型의 症狀에 해당되면 1점씩을 부과하여, 主症 개수를 主症점수로, 症狀 총개수를 類型점수로 하였다.

2) 각 類型의 평균점수 算出

각 類型의 문항수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각 類型 症狀 개수의 반을 평균점으로 하였다[19].

氣虛類型의 평균점수 : 主症狀이 최소 2개이고, 類型점수가 3점 이상

血虛類型의 평균점수 : 主症狀이 최소 5개이고, 類型점수가 6점 이상

陰虛類型의 평균점수 : 主症狀이 최소 2개이고, 類型점수가 5점 이상

寒類型의 평균점수 : 主症狀이 최소 3개이고, 類型점수가 5점 이상

氣滯類型의 평균점수 : 主症狀이 최소 3개이고, 類型점수가 5점 이상

濕痰類型의 평균점수 : 主症狀이 최소 2개이고, 類型점수가 4점 이상

血瘀類型의 평균점수 : 主症狀이 나타나고, 類型점수가 2점 이상

3) 調査類型 算出

1)과 2)의 방법으로 算出한 각 類型의 점수에서 主症점수와 類型점수가 평균점 이상인 類型을 調査類型으로 하였다.

만일 평균점 이상인 類型이 없을 경우, 主症점수가 평균점 이상인 類型을 調査類型으로 하였다[20].

---

19) 陰虛型은 主症이 4개 次症이 6개이므로, 主症의 평균을 2점 類型의 평균을 5점으로 하였다.

20)

번호	氣虛	血虛	陰虛	寒	氣滯	濕痰	血瘀
17	1.2	4.4	0.0	3.4	4.5	0.1	0.0
3	1.1	5.5	0.3	2.2	0.0	1.2	0.0

(각 類型의 앞의 숫자가 主症점수, 뒤의 숫자가 類型점수임)
17의 경우 평균점수를 넘는 類型은 氣滯이므로 調査類型은 氣滯가 된다.
3의 경우 평균점수를 넘는 類型은 없고 血虛의 主症이 평균을 넘으므로, 調査類型은 血虛가 된다.

www.kci.go.kr

Ⅲ. 調査對象者의 主症점수와 類型 점수 및 體質分類

(각 類型의 앞의 숫자가 主症점수, 뒤의 숫자가 類型점수임)

번호	氣虛	血虛	陰虛	寒	氣滯	濕痰	血瘀	主症	體質
1	0.1	2.2	0.1	3.4	1.1	0.2	0.0	冷症	少陽
2	1.1	2.2	0.1	3.3	1.1	0.2	1.3	난소낭종	太陰
3	1.1	5.5	0.3	2.2	0.0	1.2	0.0	冷症	少陰
4	1.1	1.3	0.2	3.4	0.0	1.2	0.0	冷症	太陰
5	1.1	2.8	0.1	3.3	1.3	0.2	1.1	痛經	少陰
6	0.0	2.2	0.0	0.1	2.3	1.2	0.0	난소낭종	少陰
7	1.1	1.2	3.4	3.3	1.1	1.3	1.3	稀發月經	少陰
8	2.3	7.8	1.3	3.3	4.6	2.6	0.1	관절통	少陰
9	1.2	3.5	1.3	3.4	1.1	1.2	1.3	冷症, 帶下	少陰
10	1.3	3.4	0.0	4.5	1.3	0.2	0.0	자궁근종	少陰
11	1.2	6.6	0.1	2.3	1.3	2.3	0.0	冷症,不姙	少陽
12	3.5	9.10	1.5	5.5	3.5	2.7	1.3	월경과소,痛經	少陰
13	2.2	1.2	0.2	4.4	0.1	0.2	0.2	자궁근종	少陰
14	2.2	2.2	1.2	4.5	1.1	0.0	0.0	자궁근종	太陰
15	1.1	2.2	0.0	3.3	1.3	0.2	0.0	冷症,尿不利	少陽
16	1.1	4.4	0.1	2.2	0.2	1.2	1.3	不姙	少陽
17	1.2	4.4	0.0	3.4	4.5	0.1	0.0	난소낭종,痛經	太陰
18	1.1	3.5	1.2	3.3	4.4	1.3	0.3	痺痛	太陰
19	1.2	0.2	1.3	3.3	3.3	1.3	0.1	冷痺	少陰
20	4.4	5.6	1.4	5.5	1.2	0.3	0.0	冷痺	太陰
21	2.2	2.2	1.2	4.5	1.3	1.4	0.0	畏寒	太陰
22	3.4	7.9	3.4	4.6	4.7	2.4	0.1	자궁근종	少陽
23	2.2	3.3	0.0	4.5	1.3	1.1	0.3	帶下	少陰
24	1.1	4.4	0.0	2.2	2.4	1.3	0.1	冷症,월경과소	太陰
25	1.1	2.3	0.1	3.3	4.8	2.4	1.2	관절통,冷症	太陰
26	2.2	5.5	0.0	4.4	1.2	0.4	1.3	冷痺	少陰
27	1.1	2.2	1.4	3.3	1.1	0.1	0.3	冷症,不眠	太陰
28	2.2	3.4	1.2	2.3	0.0	0.2	0.0	冷痺	太陰
29	3.4	6.7	1.2	4.5	4.5	1.3	0.2	冷痺	太陰
30	0.0	1.1	0.0	1.1	1.2	1.1	0.0	下肢痺	太陰
31	2.2	4.5	0.2	3.3	0.1	0.2	0.3	痛經	太陰
32	2.2	0.0	1.1	2.2	2.2	0.0	0.2	左半身痺	太陰
33	0.0	0.2	0.0	2.4	0.0	0.0	0.0	不姙	少陽
34	2.2	2.3	0.1	4.5	0.0	1.2	1.2	白帶下	太陰
35	1.1	5.5	0.2	2.2	1.3	0.1	0.0	월경과소	少陰
36	1.1	1.1	0.0	1.1	0.0	0.2	1.2	자궁선근증	太陰
37	1.1	2.2	0.0	3.4	1.3	0.2	0.2	자궁경부염	少陰
38	2.2	3.6	0.2	4.4	3.4	2.4	0.3	자궁근종	太陰
39	4.4	5.7	2.4	5.6	4.6	2.6	1.3	不姙	太陰
40	0.0	3.4	0.1	2.3	1.3	0.1	0.0	자궁근종	太陰
41	1.1	7.9	1.3	4.4	1.1	1.4	0.2	冷痺	太陰
42	2.2	2.2	0.1	3.3	1.2	0.1	0.0	冷痺	太陰
43	0.0	2.4	1.2	3.3	1.1	2.3	0.1	膝痛	太陰

Ⅳ. 調査結果 및 考察

冷症이란 일반적으로 冷을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신체 특히 四肢와 腰에 冷을 느껴 곤란한 상태[9]를 말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피하지방층이 두터워 冷症의 70%가 여성이며, 不姙症 帶下症 등 여러 질환을 유발한다 하여[10] 한방부인과에서는 옛부터 여성의 冷症을 중시하였으나 하나의 상병명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증상은 매우 다양하여 全身이 寒冷한 사람, 여름에도 발이 寒冷하여 버선을 신는다든지, 판자로 된 거실 같은 곳에 오래 있지 못하는 사람, 頭部만이 冷寒한 사람, 背部나 腹部가 얼음을 댄 듯이 冷寒한 사람, 무릎아래가 물에 잠긴 듯하고 얼굴은 불같이 달아 오른다고 하는 사람 등 각양각색이다. 최근에는 냉방기구가 많이 보급되어 회사같은 곳에서는 냉방으로 인한 冷寒症을 호소하는 患者가 있으며, 營養이 惡化되어 貧血을 일으켜 冷寒症을 일으키는 일도 있다[11].

冷症의 원인은 크게 血虛와 血滯(또는 瘀血), 氣

www.kci.go.kr

虛(또는 脾氣虛), 水毒(체내 수분의 偏在로 일정한 곳만 냉함)으로 나누어 지는데[12,13], 서양의학의 신경말단에 분포된 지각신경과민증, 자율신경실조증, 호르몬실조, 빈혈 저혈압, 심장 신장 혈관 등 순환계 고장, 불안 초조 등의 정신적 긴장, 부인병에서 볼 수 있다[10].

따라서 冷症의 治療方劑는 當歸芍藥散, 當歸四逆加吳茱萸生薑湯, 苓薑朮甘湯, 桂枝加附子湯, 眞武湯, 附子湯, 理中湯, 附子理中湯, 四逆散, 淸濕化痰湯, 등 補血 溫經散寒 利水除濕하고 瘀血을 제거하는 약물외에[14] 腎陽의 溫補를 爲主로 하며[11] 四肢의 經絡을 宣通시키는 桂枝[15]를 多用하였다.

臨床에서 冷症을 主訴로 하는 환자는 드물며 어떤 계기에서의 질환을 併發하여 래원하는 경우가 많은데[13], 본 연구에서 冷症을 주로 호소하는 환자의 主症分類는 다음과 같았다.

調査對象者의 主症分類

冷症	冷痺症	자궁근종	난소낭종	痛經	帶下
10명	10	6	3	5	4
不姙	월경과소	관절통	稀發月經	소변불리	不眠
4	3	3	1	1	1

主訴症이 冷症이나 冷痺證인 경우 이외에 冷症을 호소하는 부인과질환은 자궁근종과 난소낭종이 합 9명으로 가장 많았고, 痛經이 5명, 帶下와 不姙이 4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경과소 3명, 稀發月經이 1명으로, 冷症을 주로 호소하는 환자의 主症이 癥瘕, 痛經, 帶下, 不姙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辨證類型은

癥瘕－寒濕凝滯, 氣滯血瘀

痛經－氣滯血瘀, 寒濕凝滯, 濕熱癰阻, 虛寒, 氣血虛弱, 肝腎虧損

帶下－脾虛, 腎虛, 濕熱, 濕毒(여기서 腎虛는 腎陽虛를 포함하므로 虛寒, 寒의 辨證과 관계있음)

不姙－腎虛(帶下 참고), 肝鬱, 痰濕, 濕熱, 血瘀, 血虛

로[16] 氣滯血瘀, 寒, 濕(寒濕, 脾虛濕聚, 痰濕 등)의 공통점이 있었다. 이는 冷症의 원인을 血虛, 血滯, 氣虛, 水毒(체내 수분의 偏在)으로 볼 때 實證에 속하는 血滯, 체내수분의 偏在에 의한 증상에 해당되며, 이들이 동일한 원인을 공유하므로 질병의 발전과정상 어떤 관계를 가지고 연관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는 부인과 일부 래원환자에 대한 분석이므로 전체 환자에 대하여 조사를 확대한다면 自覺的 冷症 및 寒과 관계되는 병증에 대한 질병의 발전과정 및 상호관련성에 대한 객관적 정보획득과 이를 근거로 예방의학적 접근을 시도해 볼만 하다고 생각되었다.

실제로 조사대상자의 해당 類型개수와 조사類型은 다음과 같았다.

調査對象者의 해당 類型 개수

算出類型數	0개	1개	2개	3개	4개 이상
頻度數	5	23	8	2	5
比率(%)	11.6	53.4	18.6	4.7	11.6

調査類型이 1개인 경우가 53.4%, 2개인 경우가 18.6%, 3개인 경우가 4.7%로 類型算出이 가능했던 경우가 전체의 76.7%였고, 類型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11.6%였고, 類型이 혼잡 되어 나타난 경우가 11.6%였다.

www.kci.go.kr

1. 調査對象者의 類型

(1) 한가지 類型이 높게 나온 경우(23명)

類型	氣虛	血虛	陰虛	寒	氣滯	濕痰	血瘀
頻度數(名)	2	3	0	11	2	0	5

單一類型으로는 寒類型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血瘀, 血虛, 氣虛와 氣滯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陰虛와 濕痰은 單一類型으로 算出되지 않았다.

(2) 두 가지 類型이 높게 나온 경우 (총 8명)

氣虛	血虛	陰虛	寒	氣滯	濕痰	血瘀	頻度數(名)
*			*				2
	*		*				1
			*	*			1
			*		*		2
			*			*	2

모두 寒과 겸하여 나타났으며 氣虛, 濕痰, 血瘀가 각 2명이고, 血虛와 氣滯가 각 1명이었다.

(3) 세 가지 類型이 높게 나온 경우(총 2명)

氣虛	血虛	陰虛	寒	氣滯	濕痰	血瘀	頻度數(名)
*	*		*				1
				*	*	*	1

寒의 類型외에 血瘀, 血虛, 氣虛, 氣滯, 濕痰의 類型이 단독으로 또는 중복되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1-3가지의 조사類型이 算出된 경우가 76.7%로 설문지를 통한 辨證類型 診斷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개별類型 별로는 寒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고, 다음이 血瘀, 기타 氣虛, 血虛, 氣滯, 濕痰 등이 있었다.

여기서 寒만 채택된 경우는 환자가 冷症의 自覺症 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 비교적 초기 및 冷症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로 생각할 수 있으며, 한 개의 다른 類型이 채택되었거나 寒과 함께 다른 類型이 채택된 경우는 그 類型이 원인이 되어 冷症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설문지를 통한 診斷이 辨證類型, 원인, 병리변화 등을 아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2. 조사대상자의 體質分類

최근에는 자율신경실조증이 문제가 되어 이로 인한 冷症환자가 많다고 하는데[11], 冷症에 대한 臨床을 하면서 실제로 血虛나 陽虛와 같은 虛症의 경우 외에도 자율신경실조증과 유사한 氣鬱血滯로 인한 冷症이 많았으며, 이들을 치료하는데에는 기존의 치료법보다는 사상의학적 접근이 유효하다고 보고 체질과 관련된 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자 43명 중 少陽人이 6명, 太陰人이 23명, 少陰人이 14명이었다.

기존의 證治醫學的인 시각에서 寒熱의 개념을 爲主로 볼 때 冷證은 惡寒喜熱, 口淡不渴, 面白 手足厥冷 小便淸長 大便溏薄 脈沈遲 舌淡苔白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寒證[17]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李濟馬는 醫原論에서 "張仲景의 여섯가지 조항의 病證 가운데서 太陰 少陰 厥陰의 三陰病證은 모두 少陰人에게 있는 病證이요, 少陽病證은 少陽人에게 있는 病證이요, 太陽病證 陽明病證은 少陽人 少陰人 太陰人에게 고루 있으나 이중에서 少陰人에게 가장 많다"[18]라고 하여 순수한 三陰病은 少陰人에게 만 나타나는 것이며 少陽人과 太陽人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三陽病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冷症이 순수한 三陰病이나 寒證을 爲主로 볼때는 少陰人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며 少陽人이나 太陰

www.kci.go.kr

人, 太陽人의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冷症을 주로 호소하는 患者의 體質을 診斷해 본 결과는 少陽人이 6名 太陰人이 23名 少陰人이 14名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冷症은 순수한 三陰病이나 寒證이외에도 三陽病에서도 볼 수가 있다고 추론해 볼 수가 있겠다. 아울러 四象人 病證論 編名을 보면 表寒 表熱 裡熱 裡寒등의 구체적인 寒熱證까지 포함한 구분이 보여지는데[18], 太陽人은 寒熱證의 구분이 없으며 少陽人과 太陰人은 表病은 寒病證이며 裏病은 熱病證이고 少陰人은 表病은 熱病證이고 裏病은 寒病證으로 나타난다고 할수 있다(아래 도표).

	表病	裡病
太陽人	外感腰脊病	內觸小腸病
少陽人	脾受寒表寒病	胃受熱裡熱病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	肝受熱裡熱病
少陰人	腎受熱表熱病	胃受寒裡寒病

冷症을 手足冷寒, 畏寒, 惡寒이라는 症勢를 爲主로 四象醫學의 病證論에 나타나는 內容을 살펴 본다면, 少陰人은 表病證 중 太陽病厥陰證에서 手足厥冷이 있으나 여기서 太陽病厥陰證은 陰證이 아니며 太陽病傷風에서 正氣와 邪氣가 장기간 대치한 후 이 증상이 變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少陰人 裏病證 중 太陰證 陰毒증에서 四肢厥冷 등의 寒證을 나타내며, 直中陰經 乾霍亂 關格病에서도 脈微而欲絶하고 四肢厥冷 等의 寒證을 나타내고, 少陰證에서도 手足寒脈沈 等의 寒證을 나타내어 官桂附子理中湯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少陰證 藏厥에서도 手足厥冷의 症狀을 나타내며, 陰盛格陽에서도 身冷 脈沈細而疾 不飮水 脣靑 面黑 等의 寒證을 나타낸다. 藏厥病과 陰盛格陽病은 病情이 大同所異하여 두 證이 모두 지극히 위급한 증세로 이와 같이 막심한 病症이 생기기 전에 일찍부터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18].

少陽人은 表裏病을 不問하고 手足掌心에 땀이 나면 病이 풀린다고 하여 手足掌心에서 陰氣의 회복여부를 살펴보게 되는데, 少陽人의 病이 낫는 경우의 泄瀉는 손 발바닥에 먼저 땀이 나고, 한 번 시원하게 大便을 보면 바깥 기운이 맑고 평안하고 정신이 상쾌하고 명랑하여지나 亡陰된 경우의 泄瀉는 손 발바닥에 땀이 나지 않고 여러 번 泄瀉를 하면 바깥 기운이 거슬러서 차고 정신이 흐릿하다. 따라서 少陽人에서 手足厥冷이 나타나는 경우는 陰氣의 상태가 회복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다. 少陽人 表病 亡陰證에서 身寒하는 症狀을 나타내는데 少陽人이 평소에 몸의 밖이 차고 泄瀉를 많이 하던 사람은 病이 생기면 亡陰證이 되기가 쉬우며 이런 사람은 평소에 補陰을 해야하고 亡陰證이 되어 위험한 상태가 되어서 치료하고자 해서는 안된다. 少陽人 裏病證에서 나타나는 陽厥은 發病 後 身熱 頭痛 등의 陽證이 있다가 4-5일 지나서 手足厥冷이 나타나고 다시 반나절만에 또 다시 熱이 發生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脈이 伏滑하는 것은 裏熱이 있기 때문이며 이때 地黃白虎湯을 사용한다고 하였다[18].

太陰人의 경우 張仲景의 傷寒 厥證을 太陰人의 寒厥證이라 하였다. 이때 厥이란 단지 惡寒하고 不發熱하는 것으로 이는 手足厥逆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太陰人의 寒厥證은 勞心焦思하여 胃脘이 쇠약해지고 表가 虛薄해져서 寒邪를 이기지 못하고 外表에 침범을 받아 正氣와 邪氣가 서로 싸우는 형세인데 客이 이기고 主가 弱한 것이다. 또 太陰人 表病에 咽 이 乾燥하고 面色 靑白하며 表寒 或泄하는 症이 있는데 咽嗌 乾燥는 肝熱이고 面色 靑白 表寒或泄은 胃脘寒이다. 此病은 表裏俱病이니 素病이 太重한 것이다. 太陰人의 肝熱 肺燥證의 手指焦黑

www.kci.go.kr

瘡病은 肝燥熱로 인한 末梢循環障碍로 手指가 壞死가 되는 疾病이며 淸肝燥熱하는 淸肺瀉肝湯을 사용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그 외 消渴, 夢泄病 등에서도 手足冷症이 나타날 수 있다[18].

太陽人 解㑊證과 噎膈證은 寒證 같으면서도 寒證이 아니며 熱證 같으면서도 熱證이 아니다. 따라서 太陽人은 寒證이나 熱證으로 病勢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冷證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18].

以上의 內容을 總括하여 보면 少陰人은 表病證에서는 太陽病厥陰證에서 나타나며 蔘萸湯 人蔘吳茱萸湯 獨蔘八物湯을 使用하여 升陽益氣하고, 裏病證에서는 太陰證 陰毒證, 直中陰經 乾霍亂 關格病, 少陰證, 少陰病의 藏厥證, 陰盛格陽病에서 나타나며 人蔘附子理中湯, 官桂附子理中湯 吳茱萸附子理中湯을 사용하여 裏陰降氣하나 實際 臨床에서는 少陰人 表病證의 太陽病厥陰證이나 裏病證의 少陰病 藏厥證보다는 少陰人 裏病證의 太陰病의 十二味寬中湯 등을 써야 하는 症狀에서 手足冷寒의 症狀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少陽人은 表裏病을 不問하고 手足掌心에 땀이 나면 病이 풀린다고하여 手足掌心에서 陰氣의 회복여부를 살펴보게 되며, 少陽人에서 手足厥冷이 나타나는 경우는 陰氣의 상태가 회복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다. 少陽人은 평소에 몸의 밖이 차고 泄瀉를 많이 하던 사람이 病이 생기면 亡陰證이 되기가 쉬운데 表寒病의 亡陰證에서 身寒하는 症狀을 나타내며, 裏病證의 陽厥에서도 手足厥冷이 나타날 수 있다. 임상적으로는 少陽人이 裏熱病證에서 淸陽上昇이 되지 않아 凉膈散火湯을 써야 하는 症勢에서 手足冷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주로 神經性으로 인한 自律神經緊張에서 오는 熱厥로 볼 수가 있고, 表寒病에서 表陰降氣가 되지 않아 荊防地黃湯 等을 써야 하는 경우에도 평소 주로 身寒이나 畏寒 軟便等의 寒證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太陰人은 表病證의 寒厥과 表病 咽嗌이 乾燥하고 面色 靑白하며 表寒 或泄하는 症, 肝燥熱로 인한 手指焦黑 瘡病, 消渴, 夢泄病 등에서 手足冷症이 나타날 수 있으나 寒厥의 경우 단지 惡寒만 나고 熱이 나지 않는 것을 말한 것이고 손발이 厥逆이 되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라고하여 다른 體質에서 말하는 厥症과는 다소 다른면이 있다. 임상적으로는 太陰人 中에 주로 얼굴이 蒼白하며 평소 便이 묽고 땀이 적은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表寒證이 있는 사람으로 手足厥冷이나 身寒 畏寒等을 呼訴하는 경우가 많으며 太陰調胃湯이나 調胃升淸湯을 사용하여 肺陽을 舒氣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아울러 裏病證에서도 神經性으로 인한 自律神經失調로 인한 末梢循環障碍가 있는 경우에 手足冷症이나 循環障碍症狀을 呼訴하는 경우가 많으며 淸心連子湯이나 淸肺瀉肝湯같은 淸肝燥熱하는 方法을 爲主로 治療한다.

太陽人에서 나타나는 解㑊證과 噎膈證은 寒證 같으면서도 寒證이 아니며, 熱證 같으면서도 熱證이 아니다. 따라서 太陽人은 寒證이나 熱證으로 病勢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冷症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결국 手足冷症이나 冷痺症 등의 冷症이지만 몸이 찬 少陰人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熱이 있는 少陽人이나 아울러 寒太陰人이나 熱太陰人에게 모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四象醫學에서는 모든 病證을 性情의 偏急과 臟局大小의 生理的 機能差異에서 출발하여 결국 中庸의 상태가 깨어진 偏倚過不及의 불균형 상태로의 變化에 대한 原因 症狀 治法 그리고 豫防이라는 전반적인 理解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18]. 따라서 冷症은 性情의 差異로 인한 臟腑의 大小差異와 이로 인하여 呼吸出納의 太過 不足으로 陰陽의 升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發生하는 循環障碍라는 視覺이 爲主

www.kci.go.kr

가 되며, 各 體質의 表裏病證에 맞게 順氣調氣하여 陰陽의 升降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면 이를 治療할 수가 있다고 본다.

3. 체질별 類型경향

少陽人이 6명, 太陰人이 23 명, 少陰人이 14 명에 대하여 체질별 類型의 경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主症점수와 類型점수가 평균이상인 경우외에도 類型점수가 평균보다 1점 작은 경우까지 비교연구에 포함시켰다.

전체적으로 寒類型이 72,0%로 가장 높았으며, 氣虛 41.7%, 血虛 30.2%, 血瘀 25.6%, 氣滯와 濕痰이 23.3% 이었으며 陰虛가 9.3%로 가장 낮았다.

체질별로는 少陽人은 寒이 50%로 가장 높았고, 血虛와 濕痰이 각 33.3%이었으며, 太陰人은 寒이 73.9%로 가장 높았고, 氣虛가 47.8%이었고, 少陰人은 寒이 78.5% 氣虛와 血虛가 각 42.9%였다.

類型傾向을 강하게 나타낸 비율은 少陰人이 250.0%로 가장 높았고, 少陽人이 183.3%로 세 체질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고찰하면 少陰人의 類型傾向이 가장 높아 少陰人들이 비교적 체력이 약하거나 신체의 이상을 강하게 自覺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질별 채택된 類型을 비교하면 少陽人은 조사대상자의 숫자가 적어서 정확한 평가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寒외에 血虛와 濕痰의 비율이 높았는데, 少陽人의 病證藥理를 근거로 濕痰의 主症, 次症은 少陽人 表證과 관계가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少陽人의 表寒病에서 表陰降氣가 되지 않아 荊防地黃湯 등을 써야 하는 경우에 평소 주로 身寒이나 畏寒 軟便 등의 寒證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太陰人은 寒외에 氣虛의 비율이 높았다. 太陰人 表寒證이 있는 사람은 肺陽이 舒氣되지 않아 手足厥冷이나 身寒 畏寒等을 呼訴하고, 주로 얼굴이 蒼白하며 평소 便이 묽고 땀이 적어 氣虛濕盛의 증상과 유사한데 이는 氣虛의 비율이 높은 조사결과와 일치한다. 太陰人 裏病證에서도 신경성의 자율신경실조로 인하여 말초순환장애가 있는 경우에 手足冷症, 痺證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熱證과 氣滯의 증상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연구에서 寒證을 갖고 있는 경우로 연구를 제한하여 이 부분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少陰人의 경우 선천적으로 氣血이 虛弱한 경우가 많아 평소 신체의 이상을 빈번하게 느끼고 있으며 본 조사에서도 다른 체질에 비하여 氣血虛弱의 빈도가 높았으며 아울러 다른 체질에 비하여 血瘀의 비율이 높았다. 임상적으로 少陰人은 裏病證의 太陰病의 十二味寬中湯 等을 써야 하는 症狀에서 手足冷寒의 症狀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며 따라서 虛寒한 증상과 함께 瘀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氣 虛		血 虛		陰 虛		寒		氣 滯		濕 痰		血 瘀		합 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少陽人	1	16.7	2	33,3	1	16.7	3	50.0	1	16.7	2	33.3	1	16.7	11	183.3
太陰人	11	47.8	5	21.7	1	4.3	17	73.9	6	26.1	6	26.1	5	21.7	51	221.7
少陰人	6	42.9	6	42.9	2	14.2	11	78.5	3	21.4	2	14.1	5	35.7	35	250.0
합 계	18	41,7	13	30.2	4	9.3	31	72.0	10	23.3	10	23.3	11	25.6		

www.kci.go.kr

冷痺證 환자의 체질에 따른 類型비교

본 논문에서는 冷症만을 主症狀으로 하면서 혹 痺證을 동반한 경우와, 다른 질환으로 래원하였으나 冷症을 특히 강하게 호소한 환자 26명에 대하여 체질에 따른 類型을 비교하였다. 이가운데 少陽人 3명, 太陰人 16명, 少陰人 7명이었다.

冷痺證 환자는 太陰人이 16명으로 전체 23명 중 69.6%를 차지했고, 少陰人은 7명으로 전체 14명 중 50%, 少陽人은 3명으로 전체 6명중 50%를 차지했으며, 冷症 자체환자 중에는 太陰人이 61.5%로 가장 많았고, 少陰人이 26.9%, 少陽人이 11.5%였다.

전체적으로 寒이 80.8%로 가장 높았고, 氣虛 57.7%, 血瘀 50.0%, 濕痰 38.5%, 血虛 34.6% 이었으며 체질별 類型은 少陽人은 寒이 66.7%였고, 氣虛, 血虛, 濕痰이 각 33.3%였으며, 太陰人은 寒이 81.3%, 氣虛 56.3%, 血瘀 50.0%, 濕痰 43.8%, 氣滯와 血虛 31.3%, 陰虛 6.3%로 고르게 나타났다. 少陰人은 寒이 85.7%, 氣虛와 血瘀가 71.4%, 血虛 42.9%, 濕痰 28.6%, 氣滯 14.3% 순이었다.

類型傾向을 강하게 나타낸 비율은 전체조사에서와 같이 少陰人이 314.3%로 가장 높았고, 太陰人이 300.0%이었으며, 少陽人이 166.7%로 가장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고찰하면 冷痺證은 어느 체질에나 발생할 수 있으나 太陰人이 少陽人 少陰人보다는 19.6% 많음을 알 수 있었다. 原因類型은 自覺的 寒症외에 氣虛, 寒, 濕痰, 血虛의 순으로 나타나 冷症이 血虛나 陽虛와 같은 虛證의 경우외에도 자율신경실조증과 유사한 氣鬱血滯로 인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체질별 類型을 비교하면 少陽人은 寒의 自覺症외 다른 類型이 算出되는 경우가 적었으며(33.3%), 太陰人은 寒의 自覺症도 少陽人에 비하여 높았으며(81.3%) 氣虛, 血瘀, 濕痰 등이 높은 비율로 算出되어 이들이 冷痺證의 발생이나 병리과정에 관여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少陰人은 寒의 自覺症이 85.7%로 가장 많았으며, 氣虛와 血瘀가 71.4%로 매우 많았고 血虛도 42.9%에 달했다. 이것으로 볼 때 少陰人은 冷症을 느끼는 비율이 50%이지만 그 辨證類型이 여러 가지가 相雜되어 증상이 오래되고 重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치료의 경과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고찰한 내용을 종합하면 임상에서 자주 접하는 冷症은 血虛나 陽虛와 같은 虛症의 경우외에도 자율신경실조증과 유사한 氣鬱血滯로 인한 경우가 많았으며, 四象의 少陽人, 少陰人, 太陰人 모두에서 나타날 수 났으나 少陽人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또 少陰人의 경우 氣血虛弱을 겸하고 원인이 복잡하여 증상이 重하고 치료경과도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 되었고, 太陰人은 氣虛의 調査類型이 많이 채택되었는데 表寒證과 관련이 있

	氣 虛		血 虛		陰 虛		寒		氣 滯		濕 痰		血 瘀		합 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少陽人	1	33.3	1	33.3			2	66.7			1	33.3			5	166.7
太陰人	9	56.3	5	31.3	1	6.3	13	81.3	5	31.3	7	43.8	8	50.0	48	300.0
少陰人	5	71.4	3	42.9			6	85.7	1	14.3	2	28.6	5	71.4	22	314.3
합 계	15	57.7	9	34.6	1	3.8	21	80.8	6	23.1	10	38.5	13	50.0		

www.kci.go.kr

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의 문제점은 조사가 寒證에 국한되어 熱證을 포괄하지 못하였고 조사대상자가 충분하지 못하여 객관적은 결과를 도출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結　論

冷症을 주로 호소하는 환자들의 설문지를 통한 類型算出과 四象體質과 이들 類型의 관계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冷症을 호소하는 환자의 부인과 질환은 癥瘕(자궁근종, 난소낭종), 痛經, 帶下, 不姙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원인상 氣滯血瘀, 寒, 濕의 공통점이 있었으며 이는 血滯, 水毒(체내 수분의 偏在)에 의한 冷症으로 볼 수 있다.
2. 설문지를 통한 調査類型은 寒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血瘀이었으며, 기타 氣虛, 血虛, 氣滯, 濕痰 등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체질분류는
   ① 太陰人 23명, 少陰人 14명, 少陽人 6명으로 冷症이 모든 체질에 고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나 少陽人이 비교적 적었다.
   ② 체질별 類型傾向은 少陰人이 가장 높아 상대적 신체의 이상이 자주 나타나거나 강하게 自覺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다.
   ③ 체질별 조사類型은
   太陰人－寒, 氣虛
   少陰人－寒, 氣虛, 血瘀, 血虛
   少陽人－寒
   이 높게 나타났으며 四象醫學의 이론적 배경과 연관을 찾을 수 있었다.
4. 冷痺證 환자의 체질분류는
   ① 太陰人 16명, 少陰人 7명, 少陽人 3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경우와 같았다.
   ② 체질별 類型傾向은 少陰人이 가장 높아 그 辨證類型이 여러 가지가 相雜되어 증상이 오래되고 重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치료의 경과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었다.
   ③ 체질별 調査類型은
   太陰人－寒, 氣虛, 血瘀, 濕痰
   少陰人－寒, 氣虛, 血瘀, 血虛
   少陽人－寒
   이 높게 나타나 전체 조사대상자의 경우와 같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임상에서 자주 접하는 冷症은 血虛나 陽虛와 같은 虛證의 경우외에도 자율신경실조증과 유사한 氣鬱血滯로 인한 冷症이 많았으며, 四象의 少陽人, 少陰人, 太陰人의 모든 체질에서 나타날 수 났으나 少陽人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또 少陰人의 경우 氣血虛弱을 겸하고 원인이 복잡하여 증상이 중하고 치료경과도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 되었고, 太陰人은 氣虛의 調査類型이 많이 채택되었는데 表寒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참 고 문 헌

1. 양기상 외 19명, 한의진단명과 진단요건의 표준화연구(Ⅰ),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소(기초이론연구실), p.3, 1995

www.kci.go.kr

2. 李相勳 李仁仙, 東醫醫療阮 韓方婦人科 外來患者에 대한 實態分析, 東醫論輯, 제25輯(자연과학편), pp. 217-228, 1997
3. 李相勳 李仁仙, 辨證類型에 따른 韓方婦人科 患者의 調査研究, 전국한의학 학술대회 논문집, pp. 250-267, 1997
4. 김선호,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Ⅱ의 표준화 연구, 四象醫學學會誌 Vol 8, No. 1, pp. 187-246, 1996
5. 이정찬,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Ⅱ에 대한 타당성 연구, 四象醫學學會誌 Vol 8, No. 1, pp. 247-294, 1996
6. 양기상 외 22명, 韓醫診斷名과 診斷要件의 標準化研究(Ⅱ),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소, p. 2 18 22 28 40 42 , 1996
7. 冷方南, 中醫證候辨治軌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266, 1989
8. 羅元愷, 中醫婦科學, 서울, 醫聖堂, pp. 66 89 107 391, 1993
9. 李樹林, 李京燮, 宋炳基, 婦人冷症에 관한 文獻的 考察,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제9권1호, p. 72, 1996년5월
10. 유승원, 冷症, 醫林, 159 : 64-66, 73, 1984
11. 柳基遠 編, 診療와 優秀處方, 서울, 成輔社, pp. 338-344, 1986
12. 朴盛洙 廉泰煥, 現代漢方講座, 서울, 杏林出版社, pp. 536-537, 1985
13. 木下 외; 現代의 漢方治療, 서울, 翰成出版社, pp. 145-147 153-154 1223-1225
14. 大蒙敬節, 漢方診療醫典, 서울, 高文社, pp. 329-330, 1971
15. 전국한의과대학본초학교실 공편, 본초학, 永林社, 서울, p. 124, 1991
16. 羅元愷 외 18명, 實用中醫婦科學,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pp. 296-297, 72-74. 119-120, 287-289, 1994
17. 文濬典외 2인, 東醫病理學, 서울, 高文社, pp264-265, 1993
18. 宋一炳 외, 四象醫學, 서울, 集文堂, p152 159 443 448-452 465-468 470-471 479-484 490-491, 1997

www.kci.go.kr

【별 첨】

한방부인과 설문지

본 조사는 진료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한방부인과 학술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며, 조사된 자료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부인과학교실

나 이 : 병록번호 :

주 소 :

신 장 : 체 중 :

• 체형 : 아주비만( ) 비만( ) 보통( ) 수척( ) 아주수척( )

• 면색 : 붉은 편( ) 검은 편( ) 창백한 편( ) 누런 편( ) 보통( )

• 몸이 혹은 손발이 찬 편이다( ) 더운 편이다( ) 보통이다( )

• 체력이 강한 편이다( ) 약한 편이다( ) 보통이다( )

소화기 대소변

〈구갈과 음식〉

•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O표 해 주십시오.

목이 마르거나 입술이 건조하다( ) 입안이 쓰다( )

식욕이 없다( ) 먹고나면 더부룩하다( )

속이 쓰리고 아프다( ) 편식한다( )

먹고나서 구역감이 있거나 음식물을 토해 낼 때가 있다( )

•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O표 해 주십시오.

물을 먹을 때 찬물이 좋다( ) 더운물이 좋다( )

식사량이 많다( ) 보통이다( ) 적다( )

소화는 잘 된다( ) 가끔 체한다( ) 자주 체한다( )

www.kci.go.kr

〈대 변〉

1. 배변 회수는 기입해 주십시오.(일마다 번)

2. 변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하나만 선택하여 O표 해 주십시오.

매우 심한 변비( ) 변비인 편( ) 정상이다( ) 설사인 편( )
매우 심한 설사( ) 변비와 설사가 교대된다( )

•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O표 해 주십시오.

나올 때는 굳은 변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무르다( )
새벽마다 설사를 한다( )
변이 거의 물처럼 나오거나 음식물이 거의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 )
변을 볼 때 배가 꾸르륵거리고 아프면서, 변을 보고 나도 시원하지 않다( )

〈소 변〉

1. 하루에 소변을 보는 회수가 어떻습니까?

잦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가끔 보는 편이다( )

2. 소변의 량과 색깔과 상태가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O표 해 주십시오.

량이 많은 편이다( ) 보통이다( ) 적은 편이다( )
상태가 맑은 편이다( ) 탁한 편이다( )
색깔이 보통이다( ) 누런 편이다( ) 붉은 편이다( )

•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O표 해 주십시오.

밤에 소변을 자주 보고 싶다( ) 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 )
소변을 다본 후에 찔끔거리거나 소변이 저절로 나온다( )
소변을 볼 때 아프다( )

소화기와 대소변에 대해 특별히 기입할 사항이 있으면 직접 기입을 부탁드립니다.

->

www.kci.go.kr

과거력

• 과거에 크게 앓은 병이 있으면 기입해 주십시오.
->

• 과거에 부인과적 수술을 한 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 출산회수(　　회)　　유산회수(자연유산　　회/ 인공유산　　회)

월경력

1. 우리나라 여성의 초경 연령은 대체로 13-16세입니다. 본인의 초경연령을 기입해 주십시오.
->

2. 월경주기는 월경이 시작된 첫날부터 다음 월경이 있는 전날까지를 말합니다. 월경주기가 24-36일로 규칙적이면 정상으로 봅니다.
• 주기가 일정한 경우 며칠 주기인지 기입해 주십시오. (　　일 주기)

•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월경이 빨랐다 느렸다 함) 그 차이가 며칠인지 기입해 주십시오.

•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해 O표 해 주십시오.
월경이 아주 빈발하다(　)　　월경이 가끔씩 있다(　)　　월경이 없다(　)

3. 월경출혈의 지속기간은 3-7일이 정상입니다. 본인의 기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

4. 월경출혈의 량은 첫날은 소량이며 2-3일째에 많고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에 량이 지나치거나 부족한 경우 월경량의 이상으로 봅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O표 해 주십시오.
아주 많다(　)　많은 편이다(　)　보통이다(　)　적은 편이다(　) 아주 적다(　)

www.kci.go.kr

5. 월경의 질은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O표 해 주십시오.
   묽다( ) 보통이다( ) 진하다( )

6. 월경출혈에 혈괴가 섞여 나옵니까? (예/아니오)

7. 월경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O표 해 주십시오.
   붉다( ) 검붉다( ) 연하다( )

8. 대하는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표 해 주십시오.
   량 : 아주 많다( ) 많은 편이다( ) 보통이다( ) 적은 편이다( ) 아주 적다( ) 없다( )
   색깔 : 푸른색( ) 붉은색( ) 누런색( ) 흰색( ) 검은색( ) 혼합된 색( )
   시기 : 항상 있다( ) 배란기 전후에 있다( ) 월경직전에 있다( ) 월경전후로 있다( )

9. 월경곤란증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O표 해 주십시오.
   시기 : 월경전( ) 월경전과 월경중( ) 월경중( ) 월경중과 월경후( ) 월경후( )
   부위 : 머리( ) 유방( ) 복부나 옆구리( ) 아랫배( ) 허리( )
   기타(부위)
   양상 : 아프다( ) 뻐근하다( )

10. 월경곤란증이 아랫배가 아플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O표 해 주십시오.
   아랫배가 차다( ) 찌르듯이 아프다( ) 은은하게 아픈 것이 계속된다( )
   만지면 더하다( ) 만지면 덜하다( )
   따듯하게 하면 덜하다( ) 차게 하면 덜하다( )

11. 월경곤란증이 있는 경우 진통제 복용 유무에 대해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하여 O표 해 주십시오.
   복용한다( ) 참는다( ) 복용할 정도는 아니다( )

12. 월경력에 대해 특별히 기입할 사항이 있으면 직접 기입을 부탁드립니다.
   ->

www.kci.go.kr

변증진단

• 두통이 있으면 해당되는 사항에 ○표 해 주십시오.
부위 : 앞( ) 좌편두통( ) 우편두통( ) 양쪽 편두통( ) 뒤( ) 정수리( )
양상 : 치받친다( ) 깨질 듯이 아프다( ) 욱신거린다( ) 묵직하다( ) 은은하게 아프다( )

• 평소 가래가 많은 경우 해당되는 사항에 O표해 주십시오.
희고 멀겋다( ) 누렇다( ) 잘 뱉어지지 않는다( )

• 몸이 잘 붇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에 O표 해 주십시오.
부위 : 얼굴( ) 손( ) 다리( ) 전신( )
시간 : 아침( ) 오후( ) 저녁( ) 항상( )

• 몸의 특정 부위에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O표 해 주십시오.
부위 : 어깨( ) 가슴( ) 복부( ) 옆구리( ) 아랫배( ) 등( ) 허리( )
무릎( ) 기타(부위)
양상 : 시리다( ) 아프다( ) 저리다( ) 결린다( ) 찌르거나 맞은 듯이 아프다( )
통증이 가벼웠다 무거웠다 한다( ) 기분에 따라 아픈 정도가 변한다( )
어깨 팔꿈치 장딴지 무릎이 교대로 아프다( )
일정한 부위가 붓거나 찌르듯이 아프다( )
만지면 통증이 더하다( ) 몸의 덩어리가 일정 부위에 있다( )
복부에 덩어리 같은 것이 있다 없다 한다( )
한 자세를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
트림을 하거나 방귀를 뀌고 나면 아픈 것이 덜해진다( )

•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 해 주십시오.
머리가 무겁고 뭔가 뒤집어 쓴 느낌이다( )
자주 어지럽다( ) 눈앞이 아찔해 질 때가 있다( )
눈이 잘 충혈 되고 아프다( ) 귀가 울리거나 잘 안 들린다( )
눈 밑이나 입술 주위가 창백하다( ) 광대뼈와 입술이 붉다( )
이가 흔들리고 빠진다( ) 입술이 푸르다( )
한숨을 잘 쉰다( ) 자주 기침을 한다( )
트림을 자주 한다( ) 숨이 자주 가쁘다( )
목이 붇는다(갑상선종대)( ) 목에 뭐가 걸린 것 같다( )

www.kci.go.kr

가슴이 답답하다(　)　　자주 가슴이 두근거린다(　)
복부에 장명(꾸르륵거리는 소리)이 있다(　)
배에 핏줄이 서 있다(　)　　배가 차다(　)
손발이 저리고 뻗뻗하다(　)　　손발이 차다(　)
손발과 가슴에 열감이 있다(　)　　오후나 밤에 미열이 난다(　)
추위를 잘 탄다(　)　　평소 열이 있다(　)
행동이 더디다(　)　　다리에 힘이 없다(　)
목소리에 힘이 없고 말하기가 싫다(　)　　피로를 잘 느끼고 무기력하다(　)
몸이 무겁고 눕기를 좋아한다(　)　　비오는 날이면 몸이 더 무겁다(　)
성질이 급하다(　)　　자주 우울하다(　)
괜히 울고 싶다(　)　　의심이 많다(　)
화를 잘 낸다(　)　　잘 놀란다(　)
잠을 잘 못 이룬다(　)　　잘 잊어버린다(　)
꿈이 많다(　)　　잘 때 땀이 난다(　)
평소 땀이 많다(　)
평소 식은땀이 잘 나고 움직이면 더 해진다(　)
머리카락이 빠진다(　)
머리와 몸의 털에 윤기가 없고 잘 빠진다(　)
손톱에 핏기가 없다(　)　　손발톱이 얇고 힘이 없다(　)
피부가 건조하고 광택이 없다(　)　　피부에 감각이 둔하다(　)
피부에 반진이 올라온다(　)　　피부에 멍이 잘 든다(　)
코피나 토혈이 있거나 대소변에 피가 썩인다(　)

본인의 全身症狀에 대해 특별히 기입할 사항이 있으면 직접 기입을 부탁드립니다.
->

평가란	舌　診		脈　診	
	主訴症			
	辨證類型			
	處　方			

www.kci.go.kr